

멕시코

1. 공식국명: UNITED MEXICAN STATES (LOS ESTADOS UNIDOS MEXICANOS)
2. 위 치: 북 / 미국과 3,326km의 국경, 남 / 벨리즈, 과테말라 인접
3. 수 도: 멕시코 시티 (인구: 2,000만 명).
4. 국가원수: 폭스 (Vicente Fox Quesada)대통령 (2000.12.1 취임, 임기 6년)
5. 면 적: 1,958,201Km (세계 12위, 한반도 9배), 중남미 브라질, 아르헨티나 이어 제3위
6. 인 구: 97,360,000名 (2000년) 인구규모 세계 11위로 집중형 (인구밀도 : 46명/km2.)
7. 자연환경: 국토의 대부분 해발1000m의 고원지대이며 이중 3/4이 황무지. 저지대는 고온다습, 고지대는 온난(년 평균 15-18℃), 북부지역은 고온건조, 남동부와 해안지역은 다습한 고온 열대기후, 건기는 12월-5월, 나머지 기간은 우기
8. 주요도시: 과달라하라, 몬테레이, 칸쿤, 메리다, 아카뽄꼬, 등
9. 주요인종: 메스티조(Mestizo) 60%, 원주민(Indio) 30%, 스페인계 백인9% 기타 1%. 멕시코 사회는 소수 백인층이 지배하며, 대대로 경제, 사회, 정치적 기득권을 세습.
10. 주요언어: 스페인어와 60여개의 알려진 종족어들
11. 주요종교: 카톨릭 89.7%, 개신교 4.9%, 유대교 0.1%, 기타종교 2.1%, 무종교 3.2% 등.
12. 공휴일 및 축제일
신정(Ano Nuevo) 1월 1일
헌법제정일 (Aniv. de Constitucion) 2월 5일
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 탄생일(Natalicio) 3월 21일
세마나 산타(Semana Santa)성주간 3월말~4월초
노동절 (Dia de Trabajo) 5월 1일
대통령교서발표일(Dia de Informe presidencial) 9월 1일
독립기념일 (Dia de la Independencia) 9월 16일
미대륙 발견일 (Dia de la Raza/민족의 날) 10월 12일
만성절 (Dia de los Muertos/성인의 날) 11월 1~2일
멕시코혁명기념일 (Dia de la Revolcion) 11월 20일
성탄절 (Navidad) 12월 25일
13. 현지정보
 - A. 멕시코 표준시는 한국과의 15시간 시차난다.(멕시코가 한국보다 늦다)
 - B. 통화 화폐단위는 페소(Peso)이다.
 - C. 전압 110V / 60Hz
 - D. 전화 멕시코 국가 번호 - 52
미국에서 멕시코로 // 011+52+지역번호+전화번호
한국에서 멕시코로 // 001+52+지역번호+전화번호
 - E. 우편제도신용도는 보통으로 중요한 서류나 시간을 요하는 것은 사설 우편제도 이용 권장

- F.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 Lope de Armendariz # 110, Col. Lomas de Chapultepec, Del. Miguel Hidalgo, C.P. 11000, Mexico D.F., Mexico. Tel. 555/202-9866, Fax. 555/540-7446
주한 멕시코 대사관 33-6 Hannam-dong, Yongsan-ku, Seoul 140-210 Tel. 798-1694 Fax. 790-0939
 근무 시간 09:00-17:00, *Saturday closed **출입국 관련 및 사증 사증면제 협정 체결(3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) ***여행자 카드는 입국시 내용을 기재한후 스탬프를 받고,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출국시 제출해야 한다.
- G. KOTRA (한국무역관) Paseo de la Reforma No.265, Piso 12, Edificio Reforma 265 Col. Cuauhtemoc, Mexico, D.F., C.P. 06500, tel 555/514-3172 ~ 5, fax 555/514-3170, e-mail: kotra@infoabc.com

14. 역사

- A. 고대문명: 약 4만년전 빙하기에 아시아 유목민들이 알래스카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였으며 매년 약 1KM씩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하, 현재의 멕시코에 정착 / 기원전 3000년경 정착 생활 및 농경문화 시작 / 기원전 1500년경부터 OLMECA인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이래 1521년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MAYA, TOLTECA, AZTECA등 인디오 문화 발달
- B. 스페인 식민 통치: 1519년, 스페인의 HERNAN CORTES가 함선 11척, 군사 500명을 이끌고 멕시코만 VERACRUZ항에 상륙, 당시 AZTECA제국의 수도 현 멕시코시 침입 / 1521년, AZTECA의 마지막 황제 CUAUTEMOC 살해, 이후 300년간 스페인에 의해 식민통치. 원주민들은 백인의 지배하에 노예로 전락
- C. 멕시코 독립: 1810년,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MIGUEL HIDALGO 신부에 의해 독립 운동 시작, 1821년 9월16일 독립 선언
- D. 정치 역사
- i. 1821 멕시코-스페인간 강화조약 체결, 스페인군 철수, 9월 16일 독립선언
 - ii. 1822 공화국 수립, GUADALUPE VICTORIA 장군 초대 대통령 취임
 - iii. 1858 BENITO JUAREZ 대통령 취임
 - iv. 1877 PORFIRIO DIAZ 장군 대통령 취임
 - v. 1910 멕시코 혁명, MADERO 대통령 취임
 - vi. 1917 현행 헌법 제정
 - vii. 1920 ALVARO OBREGON 대통령 취임
 - viii. 1946 MIGUEL ALEDES 대통령 취임
 - ix. 1968 멕시코 올림픽 개최
 - x. 1970 LUIS ECHEVERRIA 대통령 취임
 - xi. 1976 LOPES PORTILLO 대통령 취임

- xii. 1982 MIGUEL DE LA MADRID 대통령 취임
- xiii. 1988 CARLOS SALINAS DE GORTARI 대통령 취임
- xiv. 1994.12.1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 대통령 취임(임기 6년)
- xv. 2000.12.1 비센떼 폭스(Vicente Fox)대통령 취임(임기 6년)

15. 주요 여행지

- A. 멕시코 시티: 국립 인류학 박물관 (Museo Nacional de Antropologia), 차뿔떼뿔 공원(Bosque de Chapultepec), 소칼로(Zocalo), 알라메다 공원(Alameda Central), 과달루페 성당(Basilica de Guadalupe), UNAM의 무랄, 툴라(Tula) 톨떼까의 유적지와 거대한 군인석장.
- B. 테오띠와칸(Teotihuacan): 거대한 고대도시로 해의 피라밋, 달의 피라밋 및 신전 등 유적지
- C. 과달라하라(Guadalajara): 제2의 도시로 멕시코를 느끼기에 좋은 도시
- D. 아카뿔꼬(Acapulco): 국제적이 휴양 도시로 절벽다이빙.
- E. 과나화또(Guanajuato): 조그마한 소도시로 스페인어 공부적합.
- F. 뿌에블라(Puebla): 콜로니얼 도시로 주변에 출룰라와 까깍스틀라.
- G. 엘타힌(El Tajin): 정글 속에 니체스타일의 피라밋.
- H. 베라끄루스(Veracruz): 공원에는 항상 음악이 있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도시.
- I. 오아하까(Oaxaca): 아름다운 콜로니얼 도시로 주변에 몬떼알반, 미틀라 등의 많은 유적지.
- J. 산끄리스토포발데라스까사스(San Cristobal de las Casas): 오랫동안 휴식하며 인디언 마을방문과 스페인어도 배울 수 있다.
- K. 팰랑께(Palenque): 주변에는 팰랑께, 야실란, 보남팍 유적지와 아구아 아술폭포가 있다.
- L. 캄뻬체(Campeche): 요새도시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
- M. 메리다(Merida):
- N. 치첸이사(Chichen Itza): 마야 유적지로 항상 엄청난 관광객으로 복잡. 복원이 잘 되어 있고 피라미드 등 볼거리가 많은 유적지이다.
- O. 칸쿤(Cancun): 국제적 휴양도시와 가까운 이슬라 무헤레스 섬등 아름다운 해변.
- P. 툴룸(Tulum): 해변유적지
- Q. 빨라야 델 까르멘(Playa del Carmen): 누드비치와 주변 대형호텔이 많다.

16. 교포상황

- A. 한인 후손 H 1905.4.4 구한말 당시 일본 인력송출회사에 의해 모집된 아국인 1,033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, 동년 5.15 멕시코 'SALINAS CRUZ' 항에 도착. COATZACOALCO와 PROGRESO를 거쳐 MERIDA지역내 22곳에서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켄(HENEQUEN) 재배농장에 정착 / 그들 후손은 현재 MERIDA, COATZACOALCO, TIJUANA, MEXICO CITY 등 멕시코 전역에 분산거주하며 그 수는 약 5,000여 세대 혹 20,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/ 그러나 동 후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멕시코인들과의 통혼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여 국어와 우리관습 등을 잃어버리고 현재는 멕시코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

그들의 원래 조국인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가짐 /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삼일절과 광복절 행사를 성대히 거행했음은 물론 미주지역 한인단체와 연계하여 독립공채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짐.

- B. 한국적 이민 H 한국 국적 국민의 최초 멕시코 이민자는 1967년 TIJUANA에 정착한 김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다수의 한국인들이 멕시코에 이주하여 MEXICO CITY를 중심으로 GUADALAJARA 등지에 거주하고 있음. / 멕시코는 그 동안 공식적으로 한국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주로 중남미(주로 에콰도르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 등) 초기 이민자들로서 멕시코에 이주, 거주하고 있음. / 이들은 주로 멕시코의 도매시장인 TEPITO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소규모 의류 및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생업을 영위하고 있음. 2002년 현재 교민은 2300여명으로 추정되며 멕시코시티 240세대 (1,300명)와 과달라하라 60세대 (280명)와 기타 40세대 (720명)으로 추정 / 체류자 현황으로는 550여명 중 공무원 20세대 (80명), 상사주재원 80세대 (330명), 유학생 30명과 기타 110명 정도